

한국 청년의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성별 차이 분석*

정병삼**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학교육과 고용안정, 주거안정 등이 결혼 및 출산에 주는 영향을 검증하고, 유의미한 구조관계의 세부적인 성별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대학졸업, 대학 내 취업지원, 고용안정, 주거안정(주거소유 기대), 결혼의사 및 실제 결혼여부, 자녀 출산의사 및 실제 자녀유무 등에 관련된 15개 변수를 추출하여 세부적인 성별 차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과 대학취업지원이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고용안정은 주거소유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있었다. 둘째, 대학교육과 고용안정은 주거소유기대를 매개로 결혼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성별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기대가 결혼을 매개로 출산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결혼과 대학교육이었는데, 남자집단은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이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여성집단은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 청년, 결혼, 출산, 성차, 고용

*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도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V의 데이터활용 연구공모로 선정되어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수정·보완하였음.

**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byong3@hanmail.net)

I. 서론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청년들의 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의 빈곤과 주거 불안정이 심화하며, 궁극적으로 결혼과 출산이 계속 감소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홍기석, 2018). 2019년 기준 한국 사회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결혼율을 나타내는 조혼인율¹⁾은 4.7로 2015년 5.9에서 하락 중이고, 출산율은 2019년 현재 가임여성 1인당 0.9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통계청, 2019). 그뿐만 아니라 2020년 현재 15~29세 사이의 청년 실업률은 9.3%로 악화한 상황인데(통계청, 2020), 다수의 전문가는 청년 실업이 경제구조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장효진, 2017; 안선민·김병섭, 2018; 이태진 등, 2016). 특히 2020년 초부터 발생한 COVID-19로 인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산업계에 상당한 고용 충격이 발생하여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빈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김영대·이영재, 2020).

이러한 청년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들의 취업, 주거, 결혼 등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김기현·유민상, 2019). 그러한 연구 산물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층 고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서 대학교육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최수빈·지형주·김상준, 2018; 이종찬, 2019; 김혁주·이상호·고현선, 2017). 이들의 연구에서는 공통으로 대학교육 과정에 취업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산학(産學)연계 프로그램, 취업 지원프로그램 등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직업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교육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고, 이를 통해 경제력을 축적함으로써 결혼, 주거안정 등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강인주, 2018). 특히 대학에서 국가직무역량(NCS) 관련 교육과 취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학생들의 직업역량을 높여주면 취업률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곤, 2018). 이러한 대학의 취업 지원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고용상태에 도달할 경우 경제력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주거안정, 결혼 및 출산을 위한 여력을 갖추게 된다(이태진 등, 2016).

1) 인구 천명 당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매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서 통계치를 작성하여 공개함.

과거에는 취업, 결혼, 출산 등을 생애주기에서 자연스럽게 달성하는 발달단계로 간주하여 개인의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상태로 도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김은정, 2014), 현재는 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해 개인적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경제패러다임이 저성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청년층에 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이태진 등, 2016; Laybourn-Langton & Jacobs, 2018).

이태진 등(2016)은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의 차이가 청년 빈곤, 주거 불안정, 결혼 및 출산율의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관계를 보고했고, 일본 및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부정적 연결 관계가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규명했다. 다만, 그의 연구는 4년 전에 수행된 것으로서 현 시점과는 차이가 있고, 지금까지 수행된 다른 연구는 비교적 소규모 표본을 분석한 연구결과라서 전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 제한되며, 연구에 사용된 예측변인의 수가 적어서 정책에 반영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교육, 고용, 주거, 결혼 및 출산 등의 변수 간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대규모 패널조사는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에 적합한 표본과 예측변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진학 여부, 학제, 직종, 현 직장에서의 계속근무 의도 등 세부적인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로관계 뿐만 아니라 인구통계적 변인이나 계속근무 의도 등에 따라서 결혼, 출산 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에 적합하다. 즉, 세부적인 경로관계에서 성별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2019」(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안정, 결혼 및 출산 등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고, 고용, 주거, 결혼, 출산 등에서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성별에 따른 적절한 지원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한민국 청년들의 주거소유기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대한민국 청년들의 결혼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대한민국 청년들의 자녀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분석

1. 대학교육과 고용안정의 관계

대학교육은 진리탐구와 학문발전이 본래의 목적이지만 최근에는 취업률이 대학의 평가 및 경쟁력 지표로 간주되면서 대학교육과 취업률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염동기·문상규·박성수, 2017; 이종찬, 2019; 김영재, 2014; 조성은·이영민·임정연, 2018). 먼저, 이종찬(2019)이 수행한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취업 준비과정에서 경험한 교육요구를 분석하여 대학의 취업교육에 반영할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김영재(2014)는 대학의 취업률을 평가하는 취업통계 작성 절차와 요소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만큼 각 대학은 졸업생의 취업률 산정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염동기·문상규·박성수(2017)은 대학 졸업자의 취업 현황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취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규명했는데, 공학 계열, 남성, 대학 졸업성적 우수자, 인턴십 및 취업 지원프로그램 경험자 등이 취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인턴십 프로그램 경험 여부가 취업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이를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조성은·이영민·임정연(2018)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대학 졸업 취업자의 직무 불일치 유형을 구분했는데, 노동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한 유형으로서는 대학교육을 충실하게 이수한 졸업자가 고용수준에 대한 기대를 현실에 맞게 설정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또한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대학의 서열, 취업 및 직무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 등 다양한 변수가 포함된다(이신남, 2009; 서병우, 2013; 송고은, 2019).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현재 대학교육은 본래의 학과교육에 충실하면서도 대학생들이 실제적인 취업역량 및 국가직무역량(NCS)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취업 준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전공교육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가 졸업생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준다(신혜숙·남수경·민병철, 2013).

대학교육과 고용안정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정대용·임진혁·채연희(2017)는 경영학 수업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성격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성차를 보고했다. 또한, 김민선·최보금(2016)은 공학전공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교만족도에 있어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보고했는데, 여학생들의 경우 교수자와 상호작용이 학업 흥미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하영·문보은(2017)은 이공계열 학생들의 대학 생활 경험과 취업의 질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규명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교하여 대학 생활경험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임금 및 정규직 지위 등 고용의 질 등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장벽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면 대학교육은 취업역량과 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대학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공계, 상경계 등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은 학문계열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교수자와 상호작용 등 교수-학습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또한 임금, 정규직 등 고용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은 1개 대학 내 400명 내외의 소수표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를 제한된다. 따라서 전국단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대학교육의 효과성과 고용의 관계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안정과 주거안정의 관계

전통적으로 주거는 인간에게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주는데, 여기에는 거주하는 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취향, 가족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소위 ‘아파트 브랜드에 의한 계층 구분’이 청소년들에게까지 공공연하게 통할 정도로 주거 형태는 사회적 신분으로 인식되기까지 한다(신소영, 2015).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청년 인구는 본인이 취업을 통해 경제력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는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주거가 결정되는 위치에 있다. 문소희와 이현정(2019)이 수행한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태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2%가 불안정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있었

고, 90% 이상이 주거에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물론 청년 주거의 어려움은 경험과 정보의 부족도 작용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력 부족이다(문소희·이현정, 2017).

청년들의 경제력은 대부분 안정적인 고용 관계에서 받는 급여를 축적함으로써 가능하므로 고용은 주거안정과 긴밀하게 연결된다(주휘정·김민석, 2018). 이태진 등(2016)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청년층의 취업난과 고용 불안정은 곧바로 주거 빈곤으로 연결된다. 소위 '수저계급론'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의 대물림 현상과 주택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한 청년들의 주거 빈곤이 개선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다(이병훈, 2017). 박미선(2017)은 청년층의 빈곤은 사회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결혼, 출산, 정신보건,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세대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거에 대한 태도에서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한 연구가 다수 있는데, 임미화(2020)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서 주택의 안전과 위치 등 보다 많은 요소를 고려하고, 더 큰 비용을 감당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했다. 즉, 여성의 경우 취업을 통한 경제력 축적으로 주거안정을 피하고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결혼 등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의철·임미화(2013)의 연구결과 남자의 경우 고용은 주거와 관계가 강하지만 여자는 그 관계가 더 약하다고 보고하여 주거에 대한 태도에서 성차가 단편적으로 규명되었으나, 전국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분석하여 일반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결혼 및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인구 가운데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8%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남성은 51.4%가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39.7%만 그렇게 응답했다. 또한, 고졸 이하는 51.6%가 '결혼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대졸 이상은 45%, 대학원졸 이상은 37.7%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즉, 학력과 결혼의사는 반비례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한편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만20세~44세 국민 2,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 남성은 55.8%

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45.3%에 그쳤다. 또 학력에 따른 결혼의향을 살펴보면 고졸 이하는 55.6%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고, 대학재학 이상은 60.6%가 그렇게 응답하여 학력과 결혼의향의 관계는 정비례하여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의 조사결과에서 취업자는 47.5%, 비취업자는 40.7%만 결혼의사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학력이 취업과 결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고용을 통해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신윤정과 박신아(2018)는 연구에서 교육수준은 결혼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취업, 배우자 선택 및 결혼, 출산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계층화된다고 보고했다. 또한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5)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출산을 미루는 기혼남성의 태도에는 경제적 압박에 작용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학력에 따른 사회진출 의욕이 더 많이 작용하여 성별 차이가 있다(어성연·김지연, 2013).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학력이라는 단일 독립변인에 따라 결혼, 배우자와의 연령차, 자녀 등과 같은 다양한 가족관련 종속변인의 차이를 규명하여 학력의 효과를 규명했다. 그러나 개인의 취업에 대한 기대,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성별, 고용의 질에 대한 기대 등 매우 다양한 변인들이 함께 영향을 주는데, 선행연구에서는 데이터 구축의 한계로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육요인을 단순한 학력으로 간주하지 않고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교육에 따른 기대 등 다양한 변인을 포함시켜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성별을 모형에 포함시켜 성차를 분석함으로써 대한민국 청년의 주거, 결혼의사 및 출산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청년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분석자료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4차년도 응답자 3,530명이다. 2019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는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이 통계청 승인을 거친 국가승인통계로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구를 활용하여 실시되었다. 이 패널데이터는 전국의 20~40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층화표집을 적용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제안하기에 적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

〈표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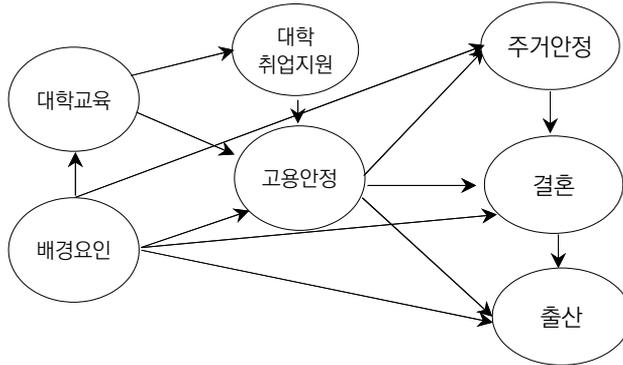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전체		3,530	100.0
성별	남자	1,839	52.1
	여자	1,691	47.9
연령대	만19~29세	1,431	40.5
	만30~39세	1,438	40.7
결혼	기혼	1,182	40.1
	미혼	1,766	59.9
지역	서울	652	18.5
	인천/경기	786	22.3
	대전/충청/세종/강원	552	15.6
	광주/전라/제주	492	13.9
	부산/울산/경남	570	16.1
	대구/경북	478	13.5
학력	대학생/대학원생	540	15.3
	고졸이하	901	25.5
	대졸이상	1,507	42.7
주거 형태	부모와 동거	1,863	52.8
	비동거/독립	1,667	47.2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조사 시점 당시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9세 일반 국민이다. 최종 조사 결과 총 3,530개의 표본이 수집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모형 및 변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들의 교육요인이 고용안정을 매개로 주거안정, 결혼의사, 자녀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계했다. 또한 제시한 연구모형에 포함된 합성변수(관찰변수의 조합)와 하위 관찰변수는 〈표 2〉에 정리하여 제시했다.



[그림 1] 연구모형

<표 2> 각 요인의 하위 관찰변수

합성변수	관찰변수	측정방법
배경 요인	성별	이분 변수(여성=1, 남성=0)
	연령	연속변수
	부모의 소득수준	등간척도(최저=1, 최고=10)
대학 교육	대학 졸업	이분 변수(여성=1, 남성=0)
	대학 학제	이분 변수(4년제=1, 전문대=0)
대학 취업 지원	진로, 직업, 취업 상담	연속 변수(리커트 5점 척도)
	진로와 직업 수업	
	진로, 직업 체험	
	학과 및 전공 체험	
	진로, 직업 박람회 참석 취업처 도움 받기	
고용 안정	계속근무의사(이직의도 역채점)	연속 변수(리커트 5점 척도)
	직장 유형	민간기업, 공기업, 공무원, 기타
	임금근로 여부	이분변수(임금근로=1, 비해당=0)
	정규직 여부	이분변수(정규직=1, 비정규직=0)
주거 안정	주택 소유 기대 정도	연속 변수(리커트 7점 척도)
	주택 유형	아파트, 빌라, 기숙사, 하숙, 기타
결혼	결혼 의사 있음	이분 변수(해당=1, 비해당=0)
	실제 결혼 여부	이분 변수(해당=1, 비해당=0)
출산	자녀 출산 의사 있음	이분 변수(해당=1, 비해당=0)
	실제 출산 여부	이분 변수(해당=1, 비해당=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도 조사자료 가운데 교육요인, 취업지위 및 소득, 주거현황, 결혼의사, 자녀 출산의사에 관련된 문항의 데이터를 변수로 재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총 19개로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구통계적 배경변인으로서 성별(여=1, 남=0), 연령, 부모소득 수준(1~10 등간척도) 등이 포함했는데, 본 연구에서의 성별은 효과변인으로, 연령과 부모소득은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포함시켰다. 둘째, 독립변인으로서 교육요인에 해당하는 하위 관찰변인은 대학 진학 여부, 4년제 대학 졸업여부 등을 이분변수(0=비해당, 1=해당)로 처리했다. 셋째, 매개변인으로서 고용안정(리커트 5점 척도)으로서 이직 의도를 역채점했다. 넷째, 종속변인으로서 주거소유 기대정도(리커트 7점 척도)와 실제 거주형태(명목변수)가 있다. 다섯째, 결혼의사(0=없음, 1=있음), 실제 결혼 여부(0=비해당, 1=해당), 자녀출산 의사(0=없음, 1=있음), 실제 자녀출산 여부(0=비해당, 1=해당), 두 자녀 이상 출산 여부(0=비해당, 1=해당) 등이 포함된다.

모든 변수는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IV」원자료를 사용했으나, 대학교육, 대학 취업교육, 결혼, 출산 등은 잠재변수로 관련된 하위 관찰변수를 합성하여 재구성했다. 또한, 고용안정성은 이직의도를 역채점하여 변환했고, 성별, 대학 졸업 여부 등은 더미변수로 변환했는데, 이직의도가 낮을수록 계속근무로 인한 고용안정이 증가한다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결혼과 출산은 잠재변수로서의 의도와 실제 행위를 묻는 관찰변수를 합성하여 사용했다.

잠재변수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학교육, 대학 취업지원, 결혼, 출산 등 네 개의 잠재요인과 하위 관찰변수의 인과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p < .001$),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우수했다($\chi^2=321.75$, $df=48$, $RMSEA=.04$, $CFI=.96$, $NFI=.96$, $TLI=.94$).

3. 자료분석 방법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지원 등이 고용안정을 매개로 주거안정에 주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 배경요인, 대학교육, 대학 취업지원 등 잠재변인을 외생 독립변수, 고용안정을 매개변수, 주거안정을 종속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했다.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지원 등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추정된 부분 매개모형과 추정을 통제된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다. 이어서 대학진학 여부, 4년제 대학 진학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직장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했다.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지원 등이 고용안정과 주거안정을 매개로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 2를 해결하기 연구문제 1의 구조모형에 결

혼을 내생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했다. 또한 구조관계의 성별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했다.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교육 등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연구문제 2의 구조모형에 출산을 내생 종속변수로 추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했다. 이어서 실제 자녀출산 여부, 자녀 숫자 등과 관계가 있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 주거 형태, 직장 유형, 성별, 직장 규모, 정규직 여부 등을 독립변수로 실제 자녀출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교차분석을 했다.

기술통계 분석, 상관 및 교차분석을 위해서는 IBM SPSS 20.0을 사용했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해서는 AMOS 22.0을 사용했다.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시행한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의 원데이터 중 연구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수의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유를 밝히고 이분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했다. 또한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2020년 6월 10일에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에서 연구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IV. 연구결과

1. 상관분석

부록에 제시된 주요 변수 간 상관계수 행렬에서 종속변인과 상관이 높은 변수를 살펴보면 고용안정(계속 근무 의도)은 4년제 대학($r=.17, p<.01$), 대학의 진로 및 직업과목 수강($r=.18, p<.01$)등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고, 주거안정과 부모의 소득수준($r=.11, p<.01$)과 상관이 높았다. 결혼의사와 상관이 높은 변수는 주거소유기대($r=.16, p<.01$)이었고, 실제 결혼여부 역시 주거소유기대($r=.52, p<.01$)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 출산의사는 결혼여부($r=.85, p<.01$)와 자녀유무는 출산의사($r=.37, p<.01$)와 가장 상관이 높았으며, 자녀 유무는 출산의사와 상관이 가장 높았다($r=.37, p<.01$)

2.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기대의 관계

연구문제 1의 분석모형은 배경요인을 통제변인,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지원을 외생 잠재변수, 고용안정을 매개변수, 주거안정을 내생 잠재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했다. 이때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통제한 영모형, 외생 잠재변수와 내생 잠재변수의 직접효과를 추정한 부분매개모형, 외생 잠재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내생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다.

〈표 3〉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영모형	204.17	42	.033	.93	.92	.91
② 완전 매개모형	193.79	41	.032	.96	.95	.93
③ 부분 매개모형	206.00	39	.034	.95	.94	.92
Δ (①-②)	10.30	1	.01	.02	.02	.02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대학교육과 대학취업지원이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고용안정이 주거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한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우수했다($\chi^2=193.79$, $df=41$, $CFI=.96$, $NFI=.95$, $TLI=.93$). 영모형은 대학교육, 대학 취업지원, 고용안정 등의 요인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추정을 통제한 모형으로 자유도는 완전매개모형보다 1단위 높으나 카이자승 값(압시된 잠재변인 간 공변량 관계와 실제 관찰된 공변량 관계의 차이)이 더 높고, 상대적 모형적합도 지수 등이 더 낮았다.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지원 등이 매개변인인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종속변수인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부분매개모형의 경우 자유도가 2 단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카이자승 값이 증가하고, 상대적 적합도 지수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완전 매개모형이 영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hierarchically nested)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모형 사이의 적합도를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으로 비교한 결과 완전매개모형은 영모형에 비해서 자유도가 1단위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10.30$, $\Delta df=1$, $p<.01$). 이에 따라 완전매개모형을 최적의 연구모형으로 채택하고, 모형 내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했다.

표준화 구조계수를 살펴보면 다섯 개의 구조모수 추정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부모의 소득수준은 대학교육($\gamma_{11}=.16$, $CR=12.94$, $p<.001$)과 대학 취업지원($\gamma_{21}=.14$, $CR=12.94$,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이 고용안정($\gamma_{32}=.47$, $CR=4.96$, $p<.001$)에 주는 영향과 대학 취업 지원이 고용안정($\gamma_{33}=.10$, $CR=2.25$, $p<.05$)이 주는 긍정적 영향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표 4〉 완전 매개모형의 표준화 계수

구조모형 계수	Estimate	SE	CR	SMC
부모 소득수준 → 대학교육	.16	.01	12.94***	.73
부모 소득수준 → 대학 취업지원	.14	.02	3.12**	.04
대학교육 → 고용안정	.47	.09	4.96***	.10
대학 취업지원 → 고용안정	.10	.02	2.25*	
고용안정 → 주거안정(소유기대)	.40	.13	3.08**	.18

* $p<.05$, ** $p<.01$, *** $p<.001$

위 구조계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으로 나누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모형①은 두 집단의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했고, 모형②는 구조 동일성 제약을 가했고, 모형③은 두 집단 간 측정모수 및 구조모수의 자율추정을 허용했다.

〈표 5〉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측정 동일 모형	277.97	95	.03	.91	.91	.90
② 구조 동일 모형	275.96	92	.03	.93	.92	.91
③ 자유 추정 모형	249.50	84	.02	.94	.93	.92
Δ (①-③)	28.4	11	.01	.03	.02	.02
Δ (①-②)	26.4	8	.00	.01	.01	.01

두 집단 간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자유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하지 않은 ③번 자유추정 모형에 ①번과 ③번 모형이 위계적으로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①번 측정동일 모형과 ③번 자유추정모형에 대해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추정모형은 측정동일모형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합도가 우수했다($\Delta\chi^2=28.4$, $\Delta df=11$, $p<.001$). 다른 적합도 지수도 자유추정모형이 더 우수했다. 또한 구조동일모

형과 자유추정모형도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적합도 비교를 한 결과 자유추정모형이 유의미하게 적합도가 우수했다($\Delta\chi^2=26.4$, $\Delta df=8$, $p<.001$). 이러한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 결과는 남녀 집단 간 구조모수와 측정모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측정모형의 경우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증가적합도 지수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구조모수의 차이만을 <표 6>에 제시했다.

<표 6> 남녀 집단 간 구조계수 차이

구조모형 계수	남자		여자	
	Estimate	CR	Estimate	CR
대학교육 → 고용안정	.63	4.29***	.41	2.89**
대학 취업지원 → 고용안정	.06	2.63	.04	1.37
고용안정 → 주거안정(소유기대)	.29	1.77	.54	2.54*

* $p<.05$, ** $p<.01$, *** $p<.001$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교육이 고용안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남자집단($\gamma_{21}=.63$, $p<.001$)이 여자집단($\gamma_{21}=.41$, $p<.01$)에 비해서 더 크게 인식한다. 또한 고용안정이 주거소유기대에 주는 영향에 대해 남자집단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gamma_{32}=.29$, $p>.05$), 여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gamma_{32}=.54$,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남녀 집단 간에는 대학교육이 고용, 고용이 주거소유기대에 주는 영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3.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기대, 결혼의 관계

연구문제 2의 분석모형은 배경요인을 통제변인,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교육을 외생 잠재변수, 고용안정, 주거안정을 매개변인, 결혼(결혼의사와 결혼여부)을 내생 잠재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했다. 이때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통제된 영모형, 외생 잠재변수와 내생 잠재변수의 직접효과를 추정된 부분 매개모형, 외생 잠재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내생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다.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7>에 제시했다.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대학교육과 대학취업지원이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고용안정이 주거안정에, 주거안정이 결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한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chi^2=470.99$, $df=85$, $RMSEA=.036$, $CFI=.96$, $NFI=.95$, $TLI=.94$)와 결혼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주거안정도 결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한 부분매개요인의 적합도가 우수했다($\chi^2=468.82$, $df=83$, $RMSEA=.036$, $CFI=.96$, $NFI=.95$, $TLI=.94$).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자승 검정으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자유도가 2단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형적합도를 개선하지 못했다($\Delta\chi^2=2.17$, $\Delta df=2$, $p>.05$). 이에 따라 보다 간명한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했다.

〈표 7〉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영모형	4335.2	86	.119	.53	.52	.34
② 완전 매개모형	470.99	85	.036	.96	.95	.94
③ 부분 매개모형	468.82	83	.036	.96	.95	.94
Δ (①-②)	2.17	2	0	0	0	0

〈표 8〉에 제시된 완전매개모형의 표준화 구조계수를 살펴보면 주거안정감이 결혼에 주는 영향($\beta_{32}=.01$, $CR=3.5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결혼 변량의 25%를 설명했다. 이는 Creswell(2012)이 제시한 사회과학 연구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의미가 있는 수준이다.

〈표 8〉 결혼관련 완전 매개모형의 표준화 계수

구조모형 계수	Estimate	SE	CR	SMC
결혼 ← 주거소유 기대	.01	.00	3.50***	.25
주거소유 기대 ← 고용안정	.39	.13	3.05**	.01
고용안정감 ← 대학교육	.50	.10	5.08***	.02
대학 취업지원 ← 대학교육	.06	.02	2.73**	

* $p<.05$, ** $p<.01$, *** $p<.001$

위 구조계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 집단으로 분할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모형①은 두 집단의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했고, 모형②는 구조 동일성 제약을 가했고, 모형

③은 두 집단 간 측정모수 및 구조모수의 자율추정을 허용했다.

두 집단 간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자유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하지 않은 ③번 자유추정 모형에 ①번과 ③번 모형이 위계적으로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했다.

〈표 9〉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측정 동일 모형	386.44	134	.04	.90	.91	.90
② 구조 동일 모형	369.75	127	.03	.92	.92	.91
③ 자유 추정 모형	353.30	118	.02	.93	.93	.92
$\Delta(①-③)$	33.1	16	.02	.03	.02	.02
$\Delta(①-②)$	16.4	9	.01	.01	.01	.01

먼저, ①번 측정동일 모형과 ③번 자유추정모형에 대해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추정모형은 측정동일모형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합도가 우수했다($\Delta\chi^2=33,1$, $\Delta df=16$, $p<.001$). 다른 적합도지수도 자유추정모형이 더욱 우수했다. 또한 구조동일모형과 자유추정모형도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적합도 비교를 한 결과 자유추정모형이 유의미하게 적합도가 우수했다($\Delta\chi^2=16,4$, $\Delta df=9$, $p>.05$). 이러한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 결과는 남녀 집단 간 측정모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구조모수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조모수의 차이만을 〈표 10〉에 제시했다.

〈표 10〉 남녀 집단 간 구조계수 차이

구조모형 계수	남자		여자	
	Estimate	CR	Estimate	CR
결혼 ← 주거소유기대	.01	1.83	.02	3.17***
결혼 ← 고용안정	.29	1.77	.02	2.35**
결혼 ← 대학교육	.62	4.19***	-.09	-2.73***
결혼 ← 대학취업지원	.39	1.72	-.01	-0.96

** $p<.01$, *** $p<.001$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거소유기대가 결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남자집단($\gamma_{34}=.01$, $p>.05$)이 여자집단($\gamma_{34}=.02$, $p<.001$)에 비해서 더 크게 인

식한다. 또한 고용안정이 결혼에 주는 영향에 대해 남자집단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gamma_{45}=.29, p>.05$), 여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인식했다($\gamma_{45}=.02, p<.01$). 대학교육이 결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남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gamma_{51}=.62, p<.001$), 여자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amma_{51}=-.09, p<.001$). 대학취업지원이 결혼에 주는 영향은 남녀 집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남녀집단에서 대학 학제(고졸 vs. 대학재학 vs. 대학졸업)에 따른 결혼의사에 대한 교차검증(chi-square)실시했다.

〈표 11〉 학력에 따른 결혼의사의 성별 차이검증

단위: 명(%)

구분	여자집단				남자집단			
	희망	중립적	불희망	계	희망	중립적	불희망	계
고졸 이하	20 (3.9)	209 (41.2)	278 (54.8)	507 (100)	24 (6.1)	197 (50.0)	173 (43.9)	394 (100)
대학생	28 (8.8)	155 (48.6)	136 (42.6)	319 (100)	29 (13.1)	122 (55.2)	70 (31.7)	221 (100)
대학 졸업	20 (2.8)	347 (48.8)	344 (48.4)	711 (100)	55 (6.9)	424 (53.3)	317 (39.8)	796 (100)
계	86 (4.7)	830 (45.1)	923 (50.2)	1839 (100)	135 (8.0)	889 (52.6)	667 (39.4)	1691
χ^2 (df)	32.7(6)***				17.57(6)**			

*** $p<.001$

〈표 11〉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여자집단의 경우 결혼에 대한 불희망 비율이 50.2%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남자집단은 39.4%로 낮았다. 여자집단의 경우 대학 재학생은 결혼희망 비율이 8.8%이나, 졸업자는 2.8%로 낮아졌다. 남자집단 역시 대학생의 경우 결혼 희망비율이 13.1%이지만 졸업자는 6.9%로 낮아지나 여자집단처럼 감소폭이 크지는 않다. 교차분석 결과는 결국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서 대학졸업여부가 결혼의도에 대해 남자집단은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여자집단은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교육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킨 여성일수록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을 보여준다.

4.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기대, 결혼, 출산의 관계

연구문제 3의 분석모형은 배경요인을 통제변인,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교육을 외생 잠재변수, 고용안정, 주거안정, 결혼을 매개변수, 자녀출산(출산의도와 실제 출산여부)을 내생 잠재변수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이때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통제된 영모형, 외생 잠재변수와 내생 잠재변수의 직접효과를 추정한 부분매개모형, 외생 잠재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내생 잠재변수에 영향을 주는 완전매개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했다. 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12>에 제시했다.

<표 12>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영모형	4335.2	86	.119	.53	.52	.34
② 완전 매개모형	470.99	85	.04	.92	.92	.91
③ 부분 매개모형	428.82	80	.02	.96	.95	.94
Δ (②-③)	42.17	5	.02	.04	.03	.03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대학교육과 대학취업지원이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고용안정이 주거안정에, 주거안정이 결혼에, 결혼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한 완전 매개모형의 적합도($\chi^2=470.99$, $df=85$, $RMSEA=.036$, $CFI=.96$, $NFI=.95$, $TLI=.94$)와 결혼뿐만 아니라 고용안정과 주거안정도 결혼에 영향을 주는 것을 가정한 부분 매개요인의 적합도가 우수했다($\chi^2=468.82$, $df=83$, $RMSEA=.036$, $CFI=.96$, $NFI=.95$, $TLI=.94$). 부분 매개모형이 완전매개모형에 위계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자승 검정으로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은 자유도가 5단위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모형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42.17$, $\Delta df=5$, $p<.001$). 이에 따라 부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채택했다. <표 12>에 제시된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구조계수를 살펴보면 결혼($\beta_{43}=.75$, $CR=6.67$, $p<.001$), 대학교육($\gamma_{51}=-.02$, $CR=-2.81$,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그러나 고용안정이 출산에 주는 영향($\beta_{53}=.01$, $CR=-1.54$, $p>.05$)과 주거소유기대가 출산에 주는 영향($\beta_{54}=-.06$, $CR=-.37$,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13〉 출산관련 부분매개모형의 표준화 계수

구조모형 계수		Estimate	SE	CR	SMC
출산	← 결혼	.75	.84	6.67***	.63
	← 대학교	-.02	.01	-2.81**	
	← 고용안정	.01	.06	-1.54	
	← 주거소유기대	-.06	.01	-0.37	

** $p < .01$, *** $p < .001$

위 구조계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녀집단으로 분할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했다. 모형①은 두 집단의 측정 동일성 제약을 가했고, 모형②는 구조 동일성 제약을 가했고, 모형③은 두 집단 간 측정모수 및 구조모수의 자율추정을 허용했다.

〈표 14〉 세 가지 모형의 적합도

모형	χ^2	df	RMSEA	CFI	NFI	TLI
① 측정 동일 모형	485.623	154	.02	.91	.91	.90
② 구조 동일 모형	469.087	144	.03	.94	.92	.93
③ 자유 추정 모형	446.358	134	.04	.96	.94	.95
$\Delta(③-①)$	39.26	20	.02	.05	.03	.05
$\Delta(③-②)$	23.13	10	.01	.02	.02	.02

두 집단 간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자유 추정하도록 제약을 가하지 않은 ③번 자유추정 모형에 ①번과 ②번 모형이 위계적으로 배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①번 측정동일 모형과 ③번 자유추정모형에 대해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추정모형은 측정동일모형에 비해서 자유도가 20단위 감소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합도를 개선했다($\Delta\chi^2=39.26$, $\Delta df=20$, $p < .001$). 다른 적합도지수도 자유추정모형이 더 우수했다. 또한 구조동일모형과 자유추정모형도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을 통해 적합도 비교를 한 결과 자유추정모형이 유의미하게 적합도가 우수했다($\Delta\chi^2=23.1$, $\Delta df=10$, $p < .05$). 이러한 위계적 카이자승 검증 결과는 남녀 집단 간 측정모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구조모수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수의 차이에 관심이 있으면 남녀 집단별 구조모수 차이를 〈표 15〉에 제시했다.

〈표 15〉 남녀 집단 간 구조계수 차이

구조모형 계수	남자		여자	
	Estimate	CR	Estimate	CR
출산 ← 결혼	4.15	5.158***	4.65	5.12***
출산 ← 대학교육	-0.13	-2.56*	.16	3.71**
출산 ← 고용안정	.01	.620	.01	.30
출산 ← 주거소유기대	.01	.508	.01	.28

* $p < .05$, ** $p < .01$, *** $p < .001$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이 출산에 주는 영향은 남자집단($\beta_{43} = 4.15$, $p < .001$)과 여자집단($\beta_{43} = 4.65$, $p < .001$)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다. 반면 대학교육이 출산에 주는 영향이 남자집단($\gamma_{51} = -.13$, $p < .05$)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이었지만, 여자집단은 유의미하게 긍정적이었다($\gamma_{51} = .16$, $p < .01$).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서 남녀집단에서 대학 학제(고졸 vs. 대학재학 vs. 대학졸업)에 따른 자녀출산에 대한 교차검증(chi-square) 실시했다.

〈표 16〉 학력에 따른 출산의사의 성별 차이검증

단위: 명(%)

구분	여자집단			남자집단		
	불희망	희망	계	불희망	희망	계
고졸 이하	203 (51.5)	191 (48.5)	394 (100)	383 (75.5)	124 (24.5)	507 (100)
대학생	216 (97.7)	5 (2.3)	221 (100)	317 (99.4)	2 (0.6)	319 (100)
대학 졸업	383 (48.1)	413 (51.9)	796 (100)	482 (67.8)	229 (32.2)	711 (100)
계	802 (56.8)	609 (43.2)	1411 (100)	1182 (76.9)	355 (23.1)	1537 (100)
$\chi^2(df)$	179.92(2)***			124.43(2)***		

*** $p < .001$

〈표 16〉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불희망 비율이 높지만 특히 남자집단은 자녀출산 불희망 비율이 76.9%로 여자집단에 비해서 더욱 낮았다. 남자집단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출산 불희망 비율이 높았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chi^2 = 124.43$, $df = 2$,

$p < .001$). 여자집단 역시 자녀출산의 불희망 비율이 56.8%로 높았지만,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가 높았다($\chi^2=179.92$, $df=2$, $p < .001$).

V. 논의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학교육과 고용안정, 주거안정, 결혼, 자녀출산 등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유의미한 구조관계의 세부적인 성별차이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이 데이터는 전국 만 15세~39세 청년층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그 중 층화임의표집 방법을 통해 추출한 표본 3,500여 명이 응답한 결과로서 현재 대한민국 청년층을 대표할 수 있다. 약 415개의 변수들 가운데 대학졸업, 대학 내 취업지원, 고용안정, 주거안정(주거소유 기대), 결혼의사 및 실제 결혼여부, 자녀 출산의사 및 실제 자녀유무 등에 관련된 15개 변수를 추출하여 구조모형을 구성하고 적합도 분석을 실시했다. 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구조관계에 대해서는 5개의 변수를 추가하여 세부적인 성별 차이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과 대학취업지원이 고용안정에 영향을 주고, 고용안정은 주거소유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고용안정은 대학교육이 주거소유기대에 주는 영향을 완전매개했고, 변량의 18%를 설명했다. 구조모형의 적합도에서 남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성 집단의 경우 고용안정이 주거소유기대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남자집단의 경우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대학교육과 고용안정은 주거소유기대를 매개로 결혼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거소유기대가 대학교육과 고용안정이 결혼의사에 주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했으며, 모형은 결혼의도 변량의 25%를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모형이 남녀 집단간 동일한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다집단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녀 집단별로 측정모수와 구조모수를 자유추정하도록 한 모형의 적합도가 더 우수했다. 즉, 여성집단의 경우 주거소유기대가 결혼의사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지만, 남성집단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못했다.

셋째,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소유기대가 결혼을 매개로 출산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결혼은 외생잠재변수가 출산의사에 주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구조모형은 출산의사 변량의 63%를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모형은 남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집단의 경우 대학교육이 출산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지만, 남자집단의 경우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2. 논의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 청년들의 대학교육과 대학 취업지원은 고용안정(현 직장에 계속 근무하려는 의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고용안정은 주거소유 기대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관계는 남녀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데 남성집단의 경우 여성집단에 비해서 대학교육이 고용안정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에 비해서 대학의 교수-학습 과정이 고용전망에 주는 영향을 더 낮게 인식하고, 만족도가 낮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김민선·최보금, 2016; 신하영·문보은, 2017; 정대용·임진혁·채연희, 2017).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진로장벽을 경험하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대학교육과 취업지원 등이 고용안정에 주는 영향을 여학생들의 더 낮게 지각한다. 이에 따라서 대학에서는 여학생들의 교수-학습과정 만족도를 높이고, 대학교육과 취업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신하영·문보은, 2017).

다음으로 청년들의 고용안정은 주거소유기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들이 취업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을 축적할 경우 주거소유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됐는데, 남성의 경우 고용안정이 주거소유기대에 주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경우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서 경기가 위축되어 있어 많은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주택가격이 상승했고, 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전세가격마저 상승하고 있다(김은정, 2020). 특히 수도권외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수직상승하고 있어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주거 소유 기대는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남성들은 그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결혼에 앞서 암묵적으로 ‘주택은 신랑측, 혼수는 신부측이 준비한다’는 관습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남자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부담이 더 크고, 이는 결혼과 출산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성미애·최연실·이재림, 2015).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 특히 남성들은 정부에게 ‘부모됨을 통한 행복 추구권’ 보장 차원에서 주택정책을 수립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도 주거소유에 대한 기대감은 청년 여성의 결혼의도와 실제 결혼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등하는 주택가격에 청년들은 ‘급여를 저축해서는 집을 살 수 없고,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야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김범수, 2020). 따라서 청년들에게 무리한 투기를 하지 않더라도 공공형주택에서 결혼과 출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주거소유기대는 대학교육, 고용안정 등이 결혼의도에 주는 영향을 완전매개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높다. 이는 이다은과 서원석(2019) 등이 수행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들의 연구결과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결혼과 출산에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미혼으로 남을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다은 등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주거안정이 결혼과 자녀 출산에 주는 긍정적인 관계를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들의 연구에서 제시한 시사점은 결혼과 출산 촉진을 위해서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 등 경제적 기반과 더불어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역시 청년층들의 결혼의사와 출산의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고용안정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지금보다 강화된 보금자리주택 대출, 생애안정자금 대출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엄다원과 홍경준(2019)은 청년고용패널 분석을 통해서 주거비 부담이 결혼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남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주거소유기대가 남성집단보다는 여성집단의 결혼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결국 결혼의사와 실제 결혼에서 주거소유가 주는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혼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가운데 대학교육의 영향에서 남녀가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났는데, 이는 어성연·김지연(2013)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결혼의지가 높고, 여학생들은 결혼 기피태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여성들의 부담 때문이기 보다는 성역할태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김혜진·김희정·서민숙, 2020). 따라서 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에 결혼, 자녀에 대한 태도, 성역할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박균열·정병삼·서은숙(2019)은 대학교육에서 결혼학을 개설하여 대학생들에게 결혼, 가정, 출산 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심어줄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영남대를 비롯한 대학에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과목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학과에 국한되어 파급력이 약할 수 있다(홍상욱, 2017). 본 연구에서 여성집단을 대학교육이 결혼의사와 실제결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력개발에서 결혼이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문제 때문으로 이해된다(이상호·이상현, 2011). 이를 위해서 대학교육에서 결혼의 필요성과 성공적인 결혼을 위한 이론적, 실제적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남녀 모두에게 결혼과 출산이 경력개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섬세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공공부분과 사기업, 자영업자 등 고용지위와 관계 없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조혼율과 출산율 지표는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취업난이 가중되어 지표가 향상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물론 결혼과 출산의 감소는 청년세대의 취업난과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독신생활을 즐기려는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 청년세대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계승하면서도 1인 가구, 반려동물의 가족화, 동성커플, 비혼 동거커플, 비혼 공동체 거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개념을 수용한다(이순미, 2016). 그렇지만 결혼을 원하면서도 만성적인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 경제구조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도 매우 많다(이상호·이상현, 2011).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육, 고용안정, 주거안정, 결혼의사 및 실제 결혼, 자녀출산 의사 및 실제 출산 등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청년층의 취업, 주거, 결혼 및 출산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또한 경로관계에서 학력을 중심으로 남녀가 성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핵심은 고학력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으로 빚어지는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와 정책이 구축되어야 함을 본 연구가 시사한다.

더 이상 취업과 결혼, 출산이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아니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현재 코로나-19 등 확산으로 소위 비접촉 경제(untact economy)가 보편화 되면 고용절벽으로

인한 결혼 및 출산저하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존립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직업유형별 주거소유 기대, 결혼 및 출산의사 등을 세부적으로 규명한 경우가 드물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 수준의 표본을 분석하여 이를 보여주었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임금근로자는 비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본인 명의의 주거소유 기대가 현저히 낮았는데, 이는 특히 수도권에서 청년층의 경제능력이 갈수록 저하되어 임금의 저축만으로는 ‘내집 마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이수욱·김태환, 2016). 따라서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대학교육, 취업, 고용안정, 주거안정, 결혼 및 출산을 위한 기반 등에 장기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김승연, 2018; 양정선, 2018).

물론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세밀한 유형분석을 통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잠재계층분석 등 통계적 방법을 적용한다면 각 청년들의 어려움과 그들이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규명할 수 있고, 그 성과데이터를 추적하여 프로그램 효과분석을 통해 지원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거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사회경제조사나 노동부의 고용패널 등 전국적 인구동향을 대표할 수 있는 대규모 표본을 구축하고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교육에서 출발하여 결혼 및 출산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했으나 고용과 주거, 결혼 및 출산 등에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나 가치관, 의식 등 정신적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서인균·이연실, 2020). 따라서 향후에는 가치관 변수를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결혼과 출산의도, 실제 결혼 및 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젠더 이슈를 포함하지 못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젠더변수와 가족개념의 다양성 변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더 세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양적변수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포함한 질적 데이터를 사용한 혼합연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인주 (2018). “NCS 교육과정의 전문대학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계획의 매개효과”. 성인계속교육연구. 제9권 제3호. 87-106.
- 김기현·유민상(2019). 청년 핵심 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민선·최보금(2016). “공학전공 신입생들의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고차원적 학습활동, 진로몰입 간의 성차모형 검증: 공학흥미와 전공 및 학교만족도의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제54권 제1호. 151-18.
- 김범수(2020). “‘월급모야 집 못사’... ‘주식 빚투’ 빠진 20대”. 세계일보. 2020년 8월 23일자.
- 김승연(2018).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지원 정책”. 월간 공공정책. 제148호. 68-70.
- 김영대·이영재(2020). “코로나 실업 충격에 전 국민 고용보험 공론화.” 마이더스. 2020권 6호. 82-83.
- 김영재(2014). “대학 취업률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취업진로연구. 제4권 제1호. 23-40.
- 김은정(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에 관한 탐색 연구”. 답론 201. 제17권 제3호. 83-129.
- 김은정(2020). “경기는 중병 앓는데 부동산만 펄펄..그 괴리, 14년 만에 최고”. 조선일보. 2020년 9월 24일자.
- 김인곤(2018).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고용가능성과 직업가치관, 취업준비행동 및 NCS기반 교육과정과의 인과적 관계”. 직업능력개발연구. 제21권 제2호. 31-58.
- 김혁주·이상호·고현선(2017). “대학의 진로교육과 취업의지에 대한 영향 관계와 교육기회충족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8권 제5호. 249-266.
- 김혜진·김희정·서민숙(2020). “남녀대학생의 결혼관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요인 비교”.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3호. 153-162.
- 문소희·이현정(2017).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청년 1인 임차가구의 가족 지원 및 주거비 부담에 따른 주거 실태 및 주거 기대”.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8권 제3호. 11-22.
- 문소희·이현정(2019). “청년의 주거 정보·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의향 영향요

- 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30권 제3호. 57-66.
- 박균열·정병삼·서은숙(2019). “고등교육에서 결혼학의 구체화 방안”.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10호. 157-176.
- 박미선(2017). “한국 주거불안계층의 특징과 양상 : 1인 청년가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27권 제4호. 110-140.
- 서병우(2013). “대학생의 특성이 전공선택동기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제3권 제2호. 65-81.
- 서인균·이연실(2020). “부모됨 인식이 출산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결혼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과 복지. 제22권 제1호. 7-24.
- 성미애·최연실·이재림(2015). “출산 연기형 무자녀 기혼 남성의 출산 연기 배경, 자녀에 대한 태도, 저출산 정책요구도”. 가족과 문화. 제27권 제4호. 1-33.
- 송고은(2019). “대졸자의 취업성가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교육요인분석-교육특성 및 교육맥락요인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22호. 1335-1357.
- 신소영(2015). “우리 너네랑 서 있는 위치가 달라: 중학생 노는 남자애들 간 갈등의 계급적 의미”. 한국문화인류학. 제48권 제3호. 105-161.
- 신윤정·박신아(2018). “배우자 간 학력 격차 변화와 결혼 선택: 출생코호트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4호. 431-464.
- 신하영·문보은(2017). “이공계 대학생의 대학생활 경험과 취업의 질 :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제20권 제5호. 59~73.
- 신혜숙·남수경·민병철(2013). “대학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2권 제1호. 211-235.
- 안선민·김병섭(2018). “정부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 한국행정학회보. 제52권 제1호. 73-104.
- 양정선(2018). “민선 7기, 어떻게 청년을 지원해야 하나”. 공공정책. 제153호. 58-60.
- 어성연·김지연(2013). “교육대학생의 결혼의지태도의 분석을 통한 저출산 관련 정책의 접근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실과교육학회지. 제26권 제3호. 149-163.
- 엄다원·홍경준(2019). “주거비 부담이 결혼 이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제46권 제3호. 33-61.
- 염동기·문상규·박성수(2017). “대학졸업자의 취업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취업진로연구. 제7권 제4호. 45-68.

- 유계숙·강민지·윤지은(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한국가족학회지. 제3권 제3호. 42-69.
- 이다은·서원석(2019).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요인 분석”. 주거환경. 제17권 제4호. 75-89.
- 이병훈(2017). “기회 불평등에 대한 국민 인식태도의 인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제24권 제2호. 157-179.
- 이상호·이상현(2011). “저출산, 인구고령화의 원인: 결혼결정의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경제분석. 제17권 제3호. 131-166.
- 이수욱·김태환(2016). “청년층의 소득 및 자산 감소에 따른 주택구입능력 변화와 구입 가능한 주택규모 추정”. 부동산분석. 제2권 제1호. 83-101.
- 이순미(2016). “비혼 청년층의 가족의식에 나타난 가족주의의 변형과 젠더 차이”. 지역과 세계. 제40권 제3호. 1-30.
- 이신남(2009).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글로벌경영학회지. 제6권 제3호. 279-296.
- 이종찬(2019). “취업역량에 관한 대학생 교육요구도 분석 - 경력관리활동, 면접전형, 인재상, NCS 직업기초능력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제9권 제2호. 117-141.
- 이태진·김태완·정의철·최은영·임덕영·윤여선·최준영·우선희(2016). 청년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미화(2020). “성별 주거비용 비교분석: 1인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연구. 제28권 제2호. 113-129.
- 장효진(2017). “노동시장정책이 청년의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제51권 제3호. 325-358.
- 정대용·임진혁·채연희(2017). “대학생의 성격특성과 취업가능성, 기업가정신에 대한 구조적 관계와 성별의 조절효과”. 기업경영연구. 제32권 제3호. 249-269.
- 조성은·이영민·임정연(2018). “대출 취업자의 직무불일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잠재계층분석(LCA)”. 취업진로연구. 제8권 제3호. 109-128.
- 정의철·임미화(2013). “패널자료를 이용한 청년가구원의 가구형성 결정요인 분석”. 주택연구. 제21권 제2호. 119-139.
- 주휘정·김민석 (2018). “청년층의 결혼 이행 여부에 대한 경제적 배경 요인의 영향”.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제8권 제2호. 59-88.
- 최수빈·지형주·김상준(2018). “교육에서 고용으로: 인턴십의 사후적 의미 변화 과정 고찰”. 경영학연구. 제47권 제4호. 837-864.

- 통계청(2019).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6월 3일 인출.
- 통계청(2020). “인구동향조사.” 국가통계포털사이트 <http://kosis.kr>에서 2020년 6월 3일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9).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 홍기석(2018). “청년실업의 결정요인 연구”. 한국경제의 분석. 제24권 제2호. 91-137.
- 홍상욱(2017). 결혼과 가족. KOCW 공개강의. www.kocw.net(검색일: 2020년 9월 26일).
- Creswell, J. W.(2012). *Educational Research: Planning, Conducting, and Evalu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4th Ed.). CA: Pearson Publishing.
- Laybourn-Langton, L., & Jacobs, M. (2018). Paradigm Shifts in Economic Theory and Policy. *Intereconomics*, 53(3), 113-118.

Abstract

Analysis of Gender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of Marriage and Childbirth of Korean Young Adults*

Jung Byongs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gender differences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the effects of college education, job security, and housing stability on marriage and child birth of young Koreans. For the purpose, the 2019 Koran Young Adults Social and Economic survey data were analyzed and detailed gender differences were analyzed by extracting 15 variables related to college graduates, job support in universities, employment stability, housing stability (housing ownership expectations), marriage intentions and actual marriage status, childbearing intentions, and actual child status,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llege education and college support for employment significantly affect employment stability. Second, college education and job securit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marriage intentions through the mediation of residential ownership expectations, and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ir influence. Third, college education, job security, and housing ownership expectation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tention of childbirth through marriage, and marriage partially mediated the impact of foreign life potential variables on the intention of childbirth, and there was a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in influence.

Keywords : Young Adults, Marriage, Birth, Gender Difference

* This paper used the panel data of 2019 Korea Youth Socioeconomic Survey.

**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Army Academy at Yeongchoen

〈부록〉 분석변수의 상관계수 행렬(N=3,530)

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265**														
3	.226**	.181**													
4	.027	.084**	.064**												
5	-.029	.042	.045	.672**											
6	.017	.013	.075*	.589**	.623**										
7	.023	.130**	.086**	.537**	.609**	.648**									
8	.058	.109**	.097**	.507**	.608**	.621**	.617**								
9	-.084	-.100	.032	.521**	.603**	.623**	.554**	.699**							
10	.171**	.174**	.119**	.144**	.181**	.167**	.160**	.152**	.106*						
11	.087**	.004	.110**	.008	.059*	.055	.051	.040	.021	.079**					
12	.058**	.014	.043*	.059**	.075**	.051	.032	.043	.008	.154**	.159**				
13	.039*	.067**	.056**	.021	.044	.070*	.074*	.030	.049	.095**	.523**	.124**			
14	.040*	-.058**	.063**	.011	-.047	-.063	-.060	-.061	-.072	.075**	.495**	.095**	.852**		
15	.039*	.032	.065**	.012	.033	.047	.019	.040	.096*	.030	.151**	.167**	.264**	.369**	
16	.005	-.065**	.021	.012	.019	.056	.052	.032	.016	-.003	.033*	-.117**	.197**	.214**	-.172**

*p<.05, **p<.01,

변수 1: 대학 졸업, 2: 4년제 대학, 3: 부모소득 수준, 4: 대학취업교육1, 5: 대학취업교육 2, 6: 대학취업교육3, 7: 대학취업교육4, 8: 대학취업교육5, 9: 대학취업교육6, 10: 고용안정(계속근무), 11: 주거안정, 12: 결혼의사, 13: 결혼여부, 14: 출산의사, 15: 자녀 유무, 16: 성별(여성)